

# 새로운 교화체제의 모색

## 1. 서 언

작년 출가교화단 총단회를 통해 교화의 현실에 대한 자성과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는 교단의 외형적 구조는 격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교당교화 정체로 인하여 교단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단은 급속히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교당·기관의 양적 성장은 거듭하여 왔지만 기초인재 개발, 청소년교화, 교도의 노령화, 교화인력수급, 영세교당의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단 현안으로 누적되어온 제반 문제의 타개를 위한 노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가교화단 총단회시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청소년교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교화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교당교화의 새 방향을 열어가기 위해서 ‘교화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화체제’를 모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교화특별위원회(위원장 교정원장)는 지난해 12월 발대식을 계기로 활동에 들어가 청소년교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새로운 교화체제의 모색을 위해서는 교화훈련부에서 교구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교화체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화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화체제의 모색은 단순히 교구자치제를 비롯한 행정업무의 처리과정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의 공유로부터 출발하여 지역과 지구교화공동체 교당을 실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교구와 교단의 공동체교화를 실현하여 재가와 출가, 교당과 기관이 다함께 교화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앙하고 수행정진 하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 영세교당 문제의 해결, 교화단 편성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단위별 교화와 예산의 통합운영, 전무출신 주거문화의 변화 등 현재의 교화환경을 혁신적 사고로 전환시켜 교화체제 전반에 걸친 활성화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교화훈련부에서는 교단의 정책방향과 교화현장이 서로 유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현장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교화연구소에서 **새로운 교화체제의 한 방법에 대한 중간 발표**를 실시하고 교무님들의 애정어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날 참석치 못한 교무님들을 위해 내용 중 지역과 지구의 교화공동체 구성에 대한 요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무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과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추진배경

교단의 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화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교화조직에도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한다.

1) 근대화의 심화와 더불어 경쟁논리가 전 사회적으로 관철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교화가 장기간 정체되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 교역자가 더불어 신앙·수행하며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역자들의 교화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 교화정체 요인의 하나가 되므로, 현장교화가 재도약 할 계기의 마련이 필요하다.

3) 교단의 다양한 사업전개가 교화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장교화위주로 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4) 교당·기관의 양적인 성장으로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5) 교화가 장기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가시적 성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 2. 기대효과

- 1)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곧 마음이 살아날 수 있다.
- 2) 교역자들의 교화에 대한 의욕이 살아날 수 있다.
- 3) 교단의 사업이 현장교화를 살리는 곳으로 역량을 집중될 수 있다.
- 4) 영세교당의 교화와 유지에 활력을 줄 수 있다.
- 5) 전문교화 및 전담교무제를 시행 할 수 있다.
- 6) 교화를 규모화 할 수 있고 자연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 7) 공동체의 구성으로 단독으로 숙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8) 정보의 교환으로 현장교화에 맞는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 9) 담임교무의 노령화를 보완할 수 있다.
- 10) 젊은 교무들의 능동적인 교화활동 참여가 가능해 진다.
- 11) 주거 및 관리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3. 추진시 고려 및 애로사항

- 1) 교단·지역·지구의 새로운 교화체제에 대한 실천의지
- 2) 전무출신 상호간 상하와 수평적 사고에 대한 이해
- 3) 희망인사지원자 및 인사배치
- 4) 단위교당 교도의 이해 문제
- 5) 교도관리 시스템의 교화단화 및 온라인화(WTIS)
- 6) 단위교당(비거주)의 일과후 관리와 좌선 주례의 문제
- 7) 재가교역자 교육 및 발굴의 문제

## 4. 추진내용

- 1) 원불교 공동체의식 강화운동
  - ① 교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역동적인 교화를 위해 교화의 터전인 사회변화의 제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 위한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장에 제공한다.(교화자료네트워크 구성, 연구발표 활성화, 지구별 소모임 학습,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 ② 전무출신 재교육

전무출신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기와 상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교구·지구·지역·출가교화단 등의 교화학습조직을 활성화시킨다.(전무출신직능훈련, 교리훈련, 교화학교, 신앙체험훈련 등)

## ③ 전무출신의 사기진작

전무출신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업과 제도를 도입한다. 전무출신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시행한다.(영세교당, 교당급지의 객관화, 사업·인사 평가, 기본요금, 후생복지 등)

## 2) 다양한 교화공동체 구성

### (1) 지역 교화공동체

#### ① 지역 교화공동체는

지역을 단위로 구성하는 교화체제를 말한다. 군 단위 또는 중소도시 단위의 교당교무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며 교화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 도시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화를 할 수 있는 교무들이 팀을 만들어 한 지역의 교화를 공동으로 주관하자는 것이다.

#### ② 지역공동체의 모델(영광)

##### a. 교구의 현 상황

영광교구는 교무수 23명, 교당수 17개 교당, 교화단원수 1586명, 평균법회출석수 893명이며, 각 교당별 출석교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00명 이상	2개 교당
50~99명 이상	3개 교당
30~49명 이상	3개 교당
20~29명 이상	4개 교당
10~19명 이상	4개 교당
10명 이하	1개 교당이다

##### b. 교화팀의 활동

영광교구의 17개 교당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4개의 교화팀을 구성하고, 교구장의 총괄아래 각 지역을 교화한다. 해당지역의 각 교화팀은 교당을 공동으로 관리 교화하고, 교화단별 담임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대마(1-7), 도양(1-11), 영광(3-34), 왕촌교당(1-5)은 현재 6명의 교무가 57개단 638명의 교화단원(출석수 415명)을 각 교당별로 맡아서 교화하고 있는데, 5명의 교무가 특성에 맞게 교당 구분 없이 15개 교화단을 각 각 맡아 교화하고 남는 인력을

본부팀으로 돌린다. 교화활동은 각 단별로 진행하고, 법회와 각종 의식의 진행은 각 교화팀이 협의하여 주례한다. 교화활동의 보고는 교화일지를 기록하여 본부 행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처리한다.

본부팀은 행정지원팀과 교화지원팀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행정지원팀은 교구와 지역단위 교당의 행정(교화일지, 교도개인카드, 사업, 공부 등)을 지원하고, 교화지원팀은 대외활동, 전담(청소년 등)교화, 현장지원, 지역연구 등 상황에 맞게 활동한다. 그리고 교구장은 담임을 맡지 않고 교구의 교화팀을 총괄하여 조절하고 지도한다.

### c. 재정과 생활

재정은 교구(또는 지역)내 교당의 예산을 통합하고 사업도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숙식의 문제는 교화팀별로 협의하여 가능한 교당의 숙소에서 하고, 교화력의 재충전을 위해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사생활은 서로 보호해 준다.

### d. 교화팀 구성의 실례

구분	현 재(23명)	예 상(23명)	비고
교구	총 3명: 교구장(1) 행정지원(2)	총 7명: 교구장(1) 행정지원팀(2) 교화지원팀(2) 예비인력(2)	+4
지역	총 17개 교당, 21명(교구장 겸직)	총 17개 교당, 16명	-4
	대마(1-7) 도양(1-11) 영광(3-34) 왕촌(1-5) 백수(2-16) 법성(1-8) 영산(1-10) 흥농(1-3) 문장(1-10) 불갑(1-9) 신광(1-3) 신흥(1-5) 함평(1-4) 군남(2-13) 군서(1-12) 영산(1-4)	1팀(5): 대마 도양 영광 왕촌 2팀(4): 백수 법성 영산 흥농 3팀(4): 문장 불갑 신광 신흥 함평 4팀(3): 군남 군서 영산	-1 -1 -1 -1

\* 괄호속의 숫자는 (교무수), (교무수-교화단수)

## (2) 지구 교화공동체

### ① 지구 교화공동체는

현 지구제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공동교화체제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지구내 교당 교무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여 교화를 하자는 것이다. 도시든 농촌이든 지구의 특성에 맞는 교화를 지구내의 교당교무가 공동으로 주관하자는 것이다.

### ② 지구공동체의 모델(부안)

#### a. 지구의 현 상황

부안지구는 교무수 8명, 교당수 6개 교당, 교화단원수 589명, 평균법회출석수 214명이며, 각 교당별 출석교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00명 이상 1개 교당  
20~29명 이상 1개 교당  
10~19명 이상 3개 교당

10명 이하 1개 교당

**b.교화팀의 활동**

부안지구의 6개 교당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교화팀을 구성하고, 지구장의 총괄 아래 각 지역을 교화한다. 해당지역의 교화팀은 교당을 공동으로 관리 교화하고, 교화단별 담임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동부안(1-4) 백산(1-4) 부안(3-34)교당은 현재 5명의 교무가 42개단 480명의 교화단원(출석수 217명)을 교당별로 맡아서 교화하고 있는데, 4명의 교무가 특성에 맞게 교당 구분 없이 10개 교화단을 각각 맡아 교화하고 남은 인력을 본부팀으로 돌린다. 교화활동은 각 단별로 진행하고, 법회와 각종 의식의 진행은 각 교화팀이 협의하여 주례한다. 교화활동의 보고는 교화일지를 기록하여 본부 행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처리한다.

본부팀은 행정지원팀과 교화지원팀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행정지원팀은 지구와 지역단위 교당의 행정(교화일지, 교도개인카드, 사업, 공부 등)을 지원하고, 교화지원팀은 대외활동, 전담(청소년 등)교화, 현장지원, 지역연구 등 상황에 맞게 활동한다. 그리고 지구장은 담임을 맡지 않고 지구의 교화팀을 총괄하여 조절하고 지도한다.

**c. 재정과 생활**

재정은 지구내 교당의 예산을 통합하고 사업도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숙식의 문제는 교화팀별로 협의하여 가능한 교당의 숙소에서 하고, 교화력의 재충전을 위해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사생활은 서로 보호해 준다.

**d. 교화팀 구성의 실례**

구분	현 재(8명)	예 상(8명)	비 고
본부	총 1명: 지구장(1) 행정지원(0)	총 3명: 지구장(1) 행정교화지원(1) 예비인력(1)	+2
지구	총 6개 교당, 8명(지구장 겸직) 동부안(1-4) 백산(1-4) 부안(3-34) 계화(1-6) 줄포(1-4) 변산(1-4)	총 6개 교당, 5명 1팀(3): 동부안 백산 부안 2팀(2): 계화 줄포 변산	-2 -1

\* 괄호속의 숫자는 (교무수), (교무수-교화단수)

**5. 마무리 글**

교화연구소에서는 장기간 교화침체와 희박해져 가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위기감을 직시하고 교화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화체제에 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가 장기간 교화침체의 중요한 원인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교화체제의 모색은 공동체의식 강화와 다양한 교화공동체 구성운동입니다. 교화공동체란 원시적 형태의 생활공동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현행 ‘1교무 1교당’ 체제에 대한 유기적 변화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제 그

실험과정을 거쳐 새로운 교화체제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무들이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연마하고 공동으로 교화를 한다. 교당에서 교무들이 출퇴근을 하며, 각 구역에 속한 교당들은 공동관리를 한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유기적 관계로서 공동으로 교화를 한다. 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부교무 보좌교무 등의 수직적 역할이 아닌 모두가 담임교무의 역할로 역동적 교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각 지역에 속한 교당의 교무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역할과 범위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교화 체제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새로운 교화체제에 대한 실천의지에 의해 실현될 것입니다.

교화공동체! 교화에 대한 이 새로운 시스템은 실험적이긴 하지만 분명 미래 교화에 대한 대안체제로써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의견과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